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온 세상 가운데 전쟁과 기근, 흉수와 가뭄의 재해로 혼란이 난무하는 가운데 주의 자비함을 주의 손길로 덮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며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 이가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었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8월 13일 (토) 제 1885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힐송교회 찬양, 계속 불러야 하나?

CT, 힐송교회 잇달은 문제들 노출로 인해 예배 찬양으로서의 힐송 노래 논란 소개/대안 제시

대중교회 스캔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다고 해서 보통 주일 아침 예배 찬양 목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힐송은 단순한 초대교회음악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예배음악에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다.

1994년에 시드니에 기반을 둔 힐송의 "내 구주 예수님(Shout to the Lord)"이라는 노래가 폭발적인 인기를 끈 이후 힐송은 미국, 특히 오순절파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힐송 유니온(Hillsong United)과 힐송 영앤프리(Hillsong Young and Free)의 팝과 록 사운드는 주일의 예배당, 라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콘서트 순회공연을 통해 미국인들 곁에 다가왔다.

현재 교회에서 부르는 10대 찬양 중 4곡이 힐송의 노래다. (주의 선

하심 (The Goodness of God), 그 이름 아름답다 (What a Beautiful Name), 날 자녀라 하시네 (Who You Say I Am), 지극히 높으신 주 (King Of Kings)

그러나 연이은 뉴스 헤드라인은 힐송 리더십 사이의 도덕적 실패, 학대에 대한 비난, 잘못된 내부 구조, 목사의 사임, 교단을 떠나는 신도들에 대한 폭로를 잇달아 보도함에 따라 일부 예배 지도자들은 그러한 힐송의 음악적 열매가 자신의 교회 사역에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Should We Keep Singing Hillsong? When the megachurch's former pastors are in the news with allegations of scandal and abuse, what a contentious name it is).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막아야 한다!

PNAS, 기후변화의 재앙적인 결과에 관한 연구 부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요구

인류 멸종 등 기후변화의 재앙적인 결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새롭게 게재된 이번 논문(Climatic Endgame: Exploring catastrophic climate change scenarios)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지구 온난화의 결과에 관한 "연구가 위험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의) 엔드게임"의 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가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유엔(UN) 과학자들이 재앙적인 변화 위험 요소를 조사할길 촉구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거나 다루려는 시도가 주류 과학계의 연구보다 오히려 '2050 거주 불가능 지구'와 같은 인기 과학 서적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인 1850년보다 기온이 섭씨 1.5도 또는 2도 높아진,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금세기 기온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선 세계 경제가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인류 종말 등을 내다보진 않는다.

물론 이렇게 기온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는데도 나름의 타당한 근거가 있다.

(2면으로 계속)



최근 힐송의 상황이 힐송: 메가 처지 익스포즈드(Hillsong: A Megachurch Exposed)에 소개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힐송 뉴욕 교회의 목사인 칼 렌츠의 2020년 해임과 관련된 디스커버리+의 다큐멘터리다.

오랜 힐송의 팬이자 찬양 리더이며 학대 피해자인 케이티 스톱퍼는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화가 났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힐송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슬픔의 단계를 밟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그녀는 '그 이름 아름답다(What a beautiful name)'와 같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계속 불러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저는 그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이 찬양은 나와 다른 이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그녀는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교회를 힐송과 연관시키거나 교회 지도자들이 야기한 피해를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 창립자인 브라이언 휴스턴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받은 후 지난 3월에 교회를 떠났고, 아버지의 학대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현재 다 교회들은 예배에서 힐송 음악을 계속 연주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음악학자와 비평가들은 수 세기 동안 논란이 있는 작곡가가 만든 노래들에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는지, 그리고 마이클 잭슨과 R. 켈리 같은 현대 대중가수에 대한 폭로로 인해 청취자

들이 음악 차트에 있는 노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연구해왔다.

우리는 역사적인 작곡과 빌보드 음악을 예배음악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지만, 예술과 예술가, 또는 예술과 그것을 생성한 시스템 사이의 분리와 같은 질문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힐송음악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몇 년 사이 등장한 추락한 목회자들의 사역 홍보를 둘러싼 고민과도 평행을 이룬다.

어떤 이들은 "그렇다면 다윗의 시편은 어떻습니까?" 혹은 "우리가 죄인이 지은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무엇이 남습니까?"라고 바로 되묻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배음악을 만드는 능력(조형적 능력)에 대해 높은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3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최해근 목사



4면

부른초장 류인현 목사



15면

광복절 77주년과 건국절 74주년 최복랑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가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물: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의약 박사 **이규성** 원장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성경일독을 돕는 Bible Reading Guide]

2022 전문강사들을 신입생 모집요강

○ 입학자격: 구약/신약 성경방을 수료하신 모든 분 ○ 제출서류: 입학원서, 성경방 수료증
○ 소용일정: 2022년 9월 2023년 1월(약 5개월간 주 1회 수업) ○ 강의방법: ZOOM
○ 특징: 목회자들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모집, 선교사, 사모, 신학생 등)
○ 사자별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Two Track School Course
LA5기 소용은 미얀마 AV를 고려하여 Two Track(PS&BS)으로 동시에 진행하여 동부 시차에 개인 분별도 7pm(현지시간 기준)에, 서부도 7pm(현지시간 기준)에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서부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BS7(4pm PST)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박재니 전도사(213-220-6729, Jenny515280@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미시오신학교(구. 비블리칼 신학교)와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MOU 체결

2022학년도 가을학기 입학안내(주·야간)

대학원

대학부 신학사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	3년	
신학교 부설 평생도 어학원, 신학원		세례교인
목회학석사(M.Div)	3년	
기독교교육석사(M.R.E)	2년	대졸및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M.Miss)	2년	
신학석사(Th.M)(설교학)	2년	M.Div학위 학력자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접수마감: 2022년 9월2일(금) 오후6시
원서교부처: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입학시험: 2022년 9월3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2시
개강부흥회: 2022년 9월6일(화) - 9월8일(목) 저녁8시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l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학감 정기태 목사: 917-733-7387
사무실: 718-463-7163 / www.rptseast.org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 2매
- 6 입학 전형료 (\$30)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힐송교회 찬양, 계속 불러야

(1면에서 계속)

지난 2년 동안 힐송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미국의 예배 지도자들은 신학적 근거에 따라 예배 히트곡들을 조사해왔다. 일부 교회에서는 신앙적 가치관의 충돌이나 사역의 접근 방식의 차이에 의해 힐송(또는 베델 또는 엘리베이션)의 찬양을 예배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회 안에서 힐송 음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음악학자와 비평가들이 골치아픈 뒷이야기와 함께 중요한 음악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생각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피터 메이서 테일러 교수는 "음악학자들은 음악이 만들어진 상황과 음악 자체가 진행되는 방식에 대한 경계를 매우 잘 그린다"라고 말했다.

때때로 그 경계선을 나누기가 쉽다. "18세기의 영향력 있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은 30년 동안 엄청난 부유한 한 왕자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교향곡 장르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 거대한 교향곡들을 창조해냈습니다. 그저 귀중한 작업입니다."라고 메이서 테일러 교수가 말했다. "저는 왕실이나 부의 편중이라는 개념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도덕적 문제는 작품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이든은 비록 멀리까지 평행선을 유지하지만, 불공정한 체제나 부패한 조직의 후원의 산물로 음악의 출처를 조율한 작곡가의 예로 볼 수 있다. 힐송의 경우 권력, 부, 접근성 및 결탁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관련성이 있다.

힐송 지도자들은 디스커버리+다큐멘터리의 치우친 묘사가 교회에 해를 끼치려는 시도일 뿐 교회의 사역을 진실하고 공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일부 팬들은 힐송 교회와 힐송 음악을 분리했다. 그러나 심지어 힐송의 뮤지션들조차도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힐송 위십은 4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캐스팅 크라운즈, 워터 킴과 함께 예정된 공연의 탈퇴를 선언하며 "독특하게 힐송 위십은 밴드가 아니며 밴드였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힐송교회의 확장이자 표현입니다."라고 밝혔다.

브룩 리거우드, 조엘 휴스턴 등 거물급 힐송 아티스트들이 나쁜 브랜드와 이미지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교회의 직원일 뿐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나 표현함으로써 힐송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했다.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잘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인기를 끄는 영적으로 자양분이 되는 음악을 개발했고, 그 음악을 통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지만... 그들이 섬기는 조직이 나쁜 조직임으로 드러났습니다.'라고 메이서 테일러 교수가 말했다.

힐송은 작곡가에게 지불하는 것 외에 공연 로열티도 교회에 주는 특이한 음악 저작권 구조로 되어 있다. 재정적 결탁에 의한 죄책감에 걱정하는 예배 지도자들에게 힐송과 그 음악 사이의 재정적 연결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일 지도 모른다.

또 다른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조직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다.

서양 캐논의 또 다른 거물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유산은 반유대주의와 히틀러가 독일의 위대함의 상징으로 그의 음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주 논의된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주의하더라도 그의 작품을 포함하지 않는 시대의 대학 교육 과정은 찾기 어려운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교회 예배의 맥락에서 찬양 인도자와는 달리 음악 역사가는 광범위한 맥락을 제공하고 특정 작곡가의 전기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음악 작품을 가르치고 참여시키는 이점이 있다.

마이클 잭슨의 미성년자 성적 학대에 관한 2019년 다큐멘터리, "리빙 네버랜드"는 팬들이 마이클 잭슨의 음악적 유산을 재고하도록 했다. 가디언즈의 수석 편집자 알렉시스 페트리스는 다음과 같이 기재했다:

"우리는 마이클 잭슨을 역사에서 쉽게 지워버릴 수 없다. 그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의 음악은 너무도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위대한 예술은 끔찍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고 재능은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는 한 그의 음악을 계속 듣는 것은 괜찮으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그들의 작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술가가 당연히 '선'을 구현한다고 믿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지독한 실수다."

미국 찬송학과 대중음악의 전문가인 머서 테일러는 여전히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비디오를 대학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다. "빌리진은 백인이 아닌 아티스트가 MTV 방송국에서 방송한 첫 번째 비디오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마이클 잭슨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

니다."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힐송의 음악 제명을 취소 문화의 한 예로 치부할 수도 있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고 예배음악 형성에 중요한 노래에 대한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없애려는 성급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은 은사주의적인 교회가 일종의 변형 복음이나 기독교의 유명한 문화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힐송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다.

음악가 댄 코건은 2016년 그의 블로그에서 "내가 그 목사들의 설교를 인용하거나 그가 우리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들의 밴드가 작곡한 노래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교리상으로 견줄 수 있지만 신학에 의문이 있는 누군가가 작곡한 오래된 찬송가를 부르는 것과 달리 힐송이나 베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영향력 있는 두 교회의 활동적인 사역에 '신뢰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 예배음악 산업은 항상 시장과 교회의 압력 아래 불편하게 존재해 왔다. 음악가들이 예배음악을 발표할 때 하는 흥정은 이념적 보이콧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충동이 그들의 음악에도 적용되리라는 것이다.

메이서 테일러 교수는 힐송의 경우 음악이 예술적, 정서적 가치가 있더라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품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품으로 세상에서 여겨지며, 브랜드 이름으로 세계에 진출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브랜드 뒤에 있는 조직에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 이름 아름답다 (What A Beautiful Name)'와 다른 힐송 히트곡들이 여러 교회의 정규 찬양목록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힐송은 많은 성도에게 의미 있고 격려가 되며 위로가 되는 노래를 부르고 기억에 남는 노래들을 만들어 왔다.

복음주의 신학 협회의 전 회장이자 복음 연합회의 회원이었던 오를라호마주 샘 스톱츠 목사는

지난여름, 블로그 게시물에서 힐송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 그는 힐송의 신앙고백과 가사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스톱츠 목사는 "나는 최근에 힐송을 뒤흔든 스펠들을 결코 지지하거나 눈감아 주지 않는다"고 밝혔고, 사역 접근법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불일치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힐송이 작곡한 성경적인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든 더럽히거나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부르기를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으며 율법적이고 배리새인적인 지역 교회 문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많은 예배 지도자들이 이에 동의한다. 동명의 이름을 가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신경쓰기 보다는 친숙함과 가창력은 물론이고 노래 자체의 내용을 우선시한다.

스러시는 많은 예배 지도자들이 힐송음악을 계속 사용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노래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부 예배 지도자들은 다큐멘터리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예배 지도자로서 스러시는 힐송에 대한 관심이 지도자와 예배자들이 음악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정직한 대화를 하기를 희망한다. 아마도 다른 지도자들도 그들의 노래를 사용하는 것이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를 의문을 가질 것이다.

가디언지의 무용 평론가인 린지 윈십은 마이클 잭슨에 대해 "그 사람과 심지어 책장에 꽂혀있는 음반까지는 비난하더라도 그의 음악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썼다.

이상하게도 아주 다른 두 상황에서 이러한 정서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각 개인이나 회중이 힐송을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는지에 관계없이, 현재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음악으로 인한 심오한 영적 경험에 대해 수치감이나 당혹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크리스천티티 투데이, CT에 글을 쓴 Kelsey Kramer McGuinnis는 음악학자, 교육자 및 작가이며, 아이오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음악을 연구한다.)



시론

강자(强者)의 폭력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대법원의 낙태와 관련된 판결에 의해 낙태는 더 이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아닌 각 주의 회의에서 거부(可否)의 여부를 의결해야 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여러 지역에서 낙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거센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아이를 출산한 한 산모가 자신의 아이를 향해 한 발언이 틱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유아에게 젖을 먹이던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사실 너를 죽일 수도 있었어. 그러나 너를 살려주기로 결정했어!" (I could have killed you, but I chose to let you live.) 그리고 한 마디 더 덧붙입니다. "나는 이 여자아이가 살 수 있도록 선택했습니다. 그게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그런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제기합니다. 특별히 '죽일 수도 있었다'는 표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을 향해 산모는 오히려 아이의 얼굴을 톡 치면서 한 번 더 "난 너를 생존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를 생존할 수 있도록 선택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 말이 다 표현되지 않은 내용으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택을 해주었으니... 그러나 너는 평생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되는거야' 라든지 아니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를 가졌었다'라는 나머지 말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마음 한 켠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쌓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21세기 삶의 한 모퉁이입니다. 생명을 대한 인간의 겹겹의 이해관과 자제는 대단히 위험한 방향으로 인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임신부가 태아의 생사(生死)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의 한 켠에는 '강한 자가 가지는 절대적인 권력'의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강한 자가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절대적인 힘과 권력'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아슬아슬한 생(生)과 사(死)의 구석으로 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력이나 혹은 권력으로 무장된 사람이 더 약하거나 아주 무력한 사람을 향해 '나는 당신을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라고 말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첫 출발점이 '태아의 생사권을 산모가 결정하도록 해야한다'는 지극히 단순하게 들려지는, 그러나 시간의 진행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는 그 논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절대적 우위의 힘을 가진 임신부가 아무런 방어력도 갖지 못한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의지하고 있는 자기 배 속 태아의 생과 사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 동네의 논리가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2022년 지구촌의 한 모퉁이에서는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전쟁이라는 모습으로 모험만 바꾸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담의 잘못된 선택이 인류에게 고통스런 죄의 짐을 남겼듯이 오늘 그 죄짐을 지고 있는 인류에게 또 다른 선택, pro-choice가 무거운 짐덩이를 하나 더 지우고 있음을 봅니다.

이 어두운 시대 한 가운데서 아련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첫 인류 아담의 선택이 빛은 고통스런 현실 앞에 창조주가 선택하신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피로 얼룩진 진한 초청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세상에 더 분명하게 더 넓게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

hankschoi@gmail.com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banner with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and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It lists '2022년 가을학기 신, 편입생 모집' and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with a list of 4 options.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입학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and the main campus addres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예배, 회개의 눈물

아무리 생각과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한 인생도 한가지 기준을 넘지 못하면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혹자는 이렇게 항변한다. "인생은 원래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따름인데, 사람이 다 실수가 있는 법 아닌가?"

다 자기 생각과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 보다,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머리에 씌워진 왕관을 지켜보고자 한 것이다.

교만은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마음이다.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울은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이 인도하는 실패의 지름길에 들어서게 된다.

예배의 실패, 회개의 부재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 실수를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은혜가 심령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예배의 실

급했다. 그 모든 핑계 속에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는 악한 심령이 이미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예배의 실패, 삶의 실패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리를 살리는 회개의 심령을 맞보는 것인데, 예배를 실패하고 나니 이를 회복할 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사울 개인에게 나타난, 실패한 예배자의 결론을 보아야 한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는가? 길보아 산 위에서 죽었는

끝나버리는 것이다. 오늘날도 최악의 유무를 넘어서서, 예배에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사울 왕에 비해 다윗은 더 악하고 험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 살인교사 등의 죄를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받아주시고, 받아주실 뿐 아니라 다윗 때문에 자손의 왕위를 보전한다고 약속도 하셨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세자들교회)

회개는 회복과 축복

- 교만, 실패, 멸망 -

예배에 실패한 영혼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회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만과 예배의 실패

단적인 예가 사울 왕이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는 아주 약하기 그지없는 지파였다.

패를 통해 은혜를 덧입는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니, 결국 그 인생은 패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하니 형식적으로 그냥 해치웠다고 말하는 것이다.

데, 목이 잘렸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 시체가 벤산 성벽에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너무 절절하게 그 느낌이 다가온다. 사울 왕이 죽었던 길보아 산에서 벤산 성벽을 가려면 개울도 지나고 돌밭도 지나가야 하는데, 그곳까지 목이 잘린 채로 질질 끌려가서 벤산 성벽에 턱하니 걸린 게 사울의 마지막이었다고 할 때,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회개와 회복, 결론

예배가 무너지면, 회복될 틈이 없다. 그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 인생은 정말 비참한 종말로

이었다. 그 이유는 딱 한가지이다. 회개의 여부가 회복과 심판을 갈라놓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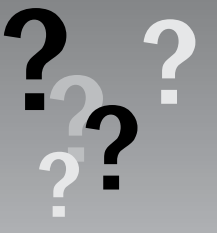
예배에 온전함이 있을 때 죄의 사유하시는 회개의 은혜를 맞게 된다. 그러나 예배가 실패할 경우, 회개의 영이 떠나가고 마침내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회개는 회개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회개는 된다.

davidnj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처사료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신학교를 3년 전에 졸업하고 남가주의 어느 교회 청년 담당 30대 부목사입니다.

- 애나하임에서 Nam 목사

A: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미래의 목회자가 어려워지는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귀한 사명의 길을 가는 목사님을 격려합니다.

1) A-Appearance, (외관 외모) 이것은 미남형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외모를 가꾸라는 것입니다.

- △ A-Appearance, 단정한 외모
- △ B-Behaviour, 품행, 행실
- △ C-Character, 성품, 인격
- △ D-Dedication, 헌신
- △ E-Education, 교육

2) B-Behaviour, 이것은 품행, 행실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상으로 단정한 인상을 풍긴다 할지라도 목사는 품행이나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3) C-Character, 성품이나 인격을 말합니다. 좋은 인상 좋은 품행에는 반드시 좋은 성품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4) D-Dedication, 헌신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목회사역에 자신의 시간과 정열과 인생을 바친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5) E-Education, 교육입니다. 계속 배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테로서 배우는 학생을 말하며 리더의 영어 Leader는 Learner(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C. 성경의 명료성 (Clarity)

성경의 명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스럽고, 이해 불가능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평범한 말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난해한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거의 해결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위하여 교사와 목사들을 세워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다. (약 1:5)

성경 명료성의 의미는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벵후 3:16, 베드로가 바울의 글에 대하여 말하면서, “중간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있느니라”고 했다.

또한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에는 신비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은밀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한다.

그렇다면 성경의 명료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케빈 데영 (Kevin DeYoung)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Kevin DeYoung, Taking God at His Word).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동일하게 평이한 것도 아니며,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명한 것도 아니지만,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들은 성경의 여가저기에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열려 있어서, 유식한 사람뿐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평범한 수단을 바르게만 사용하면, 그것들의 총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명확하게 이해되지 아니한 부분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성경의 조명을 믿는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인간의 지혜, 논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달라고 시편 저자와 같이 간구해야 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 119:18).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듯이 우리가 성경의 모든 구절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성경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이해가 늘어남에 따라 다른 부분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칼빈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Scriptura Scripturae interpret / Scripture interprets Scripture) 말을 매우 좋아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연구함으로써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신다.

우리는 5살 된 아이에게 15살 된 청소년의 행동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이해가 커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성장하게 하신다. 신앙이 어릴 때

하다는 것을 경험한다. 예를들면 성경에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말씀도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막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것이니라” (딤후 6:7) 라는 말씀도 있다.

성경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적극적 사고방식 비슷한) 성공하라는 말씀도 있고, 동시에 더 많은 것을 구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라는 말씀도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19세기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노예문제이다. 북부 교회는

을 들었다. 과연 그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정당한가? 그 목사님이 성경의 명료성을 바로 이해한 것인가? 신앙의 영웅들인 아브라함, 야곱, 다윗 등은 여러 명의 부인들 두었다. 오늘 우리가 볼 때에 과연 다윗이 성군이냐,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문화적인 차이로만 볼 것인가? 물론 성경이 기록된 당시 고대사회와 지금 현대 사회의 수천 년간의 시간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그때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은 다른가? 성경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

자는 주장 등이다. 그리고 오늘날은 좋은 성경 주석들과 연구 서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연구하면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볼 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떤 문제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상호조화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4)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한 믿음도 없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찬송과 감사를 드린다. 신앙의 성장과 함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시각을 더욱 확장시킨다.

성경의 명료성의 교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리에 반대하면서 발전시켰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근거로 “가르치는 권위 (the power of teaching, potestas magisterii)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사도시대 이후에는 사도직을 계승한 교황과 주교에게만 가르치는 권위가 주어졌다고 한다. 이런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성경의 의미가 명료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가톨릭의 이러한 교리를 반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필수적인 모든 진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함을 위한 교훈은 성경에서 모호하지 아니하고, 명료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들을 이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개혁자들은 보통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에 잘 나와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아니

성경을 인용하면서 노예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orthern Abolitionists) 남부 교회에서는 성경에 노예제도를 폐지한 말이 없는데 그것을 주장하면 성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족장들과 신약시대의 교인들도 노예가 있었다면서 (발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했다. 미국의 남부 교회에서는 오히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을 가혹처럼 사랑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북부의 공장 주인들이 노예제도를 비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북부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노예보다 더욱 학대하는 것이 더욱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남북의 신학자들과 교인들은 모두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에 관한 그들의 입장은 크게 달랐다.

이와같이 성경의 명료성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매우 큰 혼란 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성경을 왜곡시킬 수 있다.

어느 목사님께서 창 9:25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를 하셨다. 창 9:25,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목사님은 함의 자손들 (흑인들)은 노예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면 강하게 비판하는 것

입니다. 고대사회의 신앙 원리와 지금의 신앙의 원리가 다를 수 없다.

물론 고대와 현대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아니하다.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문화적인 차이를 너무 과장하면 안된다. 그때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때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오늘 21세기에 도 동일한 타락한 인간들이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그 연구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사이의 간격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때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신학적인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에 Christian Reconstructionist (기독교 재구성 주의자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그렉 반센 (Greg Bahnsen), 루사스 루스두니 (Rousas Rushdoony), 개리 놀스 (Gary North)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오늘날에도 구약의 사회법 (civil law)을 현대 사회에 맞도록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죄수들을 감옥에 그냥 수감 해 놓지 말고, 사회에 나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적당한 기술을 가르쳐야 하며, 그리고 도둑질을 하면 감옥에서 시간이라도 해결하지 말고, 앞으로 자기가 갈아야 할 책임을 가르쳐주며, 실제로 갚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

고하고 우리가 성경의 명료성을 이해할 때에 죄가 우리의 지적 활동에 영향을 끼쳐 (noetic influence of sin)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부정적이고, 왜곡되고, 편파적인 이해를 갖도록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타락은 지,정,의를 비롯한 우리 인간 전체를 타락시켰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렘 17:9).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타락을 지칭한다.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편하고 유익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19세기 미국 남부 교회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자기들에게 유익하도록 성경을 해석하여 노예제도가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설교하고, 이론을 전개했다. 왜냐하면 당시 교인들의 대부분은 거대한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 그들은 수심, 수백 에이커가 되는 농장을 경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남부 교회 지도자들은 노예제도를 방어해야 했기 때문에 노예제도 폐지는 비성경적이며, 노예제도가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그들이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보지 아니하였고, 죄가 지성에 큰 영향을 끼쳐 자신들에게 유리한 편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가져야 한다. 실제로 성경의 명료성을 생활 속에 적용시키는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의 명료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 해석의 틀을 가져야 한다. 성경을 전체적인 입장 (성경신학적)에서 바로 해석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각 시대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필요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성경의 명료성의 결론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의존함과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에 달려있다. KHL020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6 columns and 3 rows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Each entry includes a church name, pastor's name, and contact details.

제77주년 광복 감사 부흥집회 교회 회복 부흥 세미나

광복 감사 부흥집회

일 시: 8월 14일(주일) 오후 7시
*오후 6시부터 친교 및 다과.

교회 회복 부흥 세미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8월 15일(월) 오전 10시-오후 4시
"차세대 리더 목회자를 선정, 1천 불씩 재정지원을 합니다"
*주관처에서 점심 제공.

장 소: 주님의영광교회(시무 신승훈 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주 관: 남가주교계연합회(Southern California Churchs Association)

협력단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로스앤젤레스한인회, 민주평통LA, 한국기독교총연합회미주총회, 올림픽경찰서, LA 카운티교회연합회,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5G전략연구소, 예장국제총회, RPCA 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만희복지재단, 주님의영광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총현선교교회, 미주양곡교회, 세계성경장로교회, 나눔과섬김의교회, 하늘문교회, 해돋는교회, 주님의사랑교회, 실버레익한인교회, 하톤교회, 새마음교회, 미주예문선교회, 예빛교회, 영원한복음장로교회, 빅토빌복음교회, KBS America, SBS, CBS TV 미주기독교방송, 한국일보, 중앙일보, 코리아타운데일리, 크리스천버전, 미주크리스천, 크리스찬위클리, 크리스찬헤럴드, 크리스찬투데이, 기독교일보, 기독교뉴스.

강 사:



소강석 목사 (새애인교회)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민종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남가주교계연합회 조직



신승훈 목사 (상임대표회장) 지용덕 목사 (준비위원장) 류당열 목사 (공동회장) 한기형 목사 (공동회장) 이정현 목사 (사무총장) 진건호 목사 (서기) 김엘리아 목사 (회계)

남가주교계연합회 '선한 사마리아인' 법률 자문단



브래들리 변호사 정찬용 변호사 마동환 변호사 미리암 김 변호사 이현숙 변호사

*당일 현금 전액은 '차세대 리더 목회자 선정' 지원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행사문의: (714)390-9197 사무총장 이정현 목사